

대학생 리더 역량과 공감능력이 서번트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박지영

원광대학교 치의학교육연구센터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 Leader Competency and Empathy Ability on Servent Leadership

Ji-Young Park

Dept. of Research Center for Dentistry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 리더 역량과 공감능력 및 서번트 리더십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J지역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1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대학생 리더 역량, 공감능력, 서번트 리더십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과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첫째, 대학생 리더 역량, 공감능력, 서번트 리더십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 리더십 역량과 공감능력, 서번트 리더십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리더 역량과 공감능력의 점수가 높을수록 서번트 리더십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대학생 리더 역량은 서번트 리더십을 의미 있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생 공감능력은 서번트 리더십을 의미 있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학생 서번트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리더 역량과 공감능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 leader competency, empathy ability, and servant leadership based on a survey conducted with 195 college students enrolled in private universities in Area J.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applied to the collected data by using SPSS 22.0. The results found that leader competency, empathy ability, and servant leadership met the assumption of normality.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leader competency, empathy ability, and servant leadership where the higher the score of leader competency and empathy ability, the higher the servant leadership. Third, leader competency was found to be a variable that meaningfully predicted servant leadership. Fourth, empathy ability was found to be a variable that meaningfully predicted servant leadership. In conclusion, leader competency and empathy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 in strengthening college student servant leadership.

Keywords : Leader Competency, Proactivity, Situation Analysis Ability, Creative Problem Solving, Work Promotion Ability, Tolerance, Caring Thinking, Empathy Ability, Servent Leadership

1. 서론

우리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적응하며 로봇, 인공지능 등에 주도권을 잃지 않고, 상생관계를 유지하

기 위해 꼭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주목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 10년을 지배할 키워드는 모바일커머스, SNS, 빅데이터, 3D프린트, 인공지능, 로봇귀환, 양자컴퓨터, 맞춤형제, 재능전쟁, 급격한 기후변화, 미래예측, 창조국가,

*Corresponding Author : Ji-Young Park(Wonkwang Univ.)

email: jy9332@hanmail.net

Received March 14, 2024

Accepted June 7, 2024

Revised May 7, 2024

Published June 30, 2024

지속가능한 도시임을 주목해야 한다[1]. 새로운 변화와 함께 겪게 되는 사회문제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리더가 요구된다.

미래사회의 리더는 구성원과 서로 의사소통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면서 다각적인 리더십을 통해 리더 역량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더 역량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며 구성원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다. 리더 역량은 조직의 성과와 구성원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동체 및 조직에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리더와 리더십은 시대와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정의와 특성이 변화되어 왔다. 리더들은 공통 특성으로 영향력, 책임, 변화, 구성원, 공유목표를 가지고 있다. 리더 역량으로서 자기주도성, 자신감, 신뢰성, 자기확신, 책임감, 민감성, 진취성, 지속성, 지능, 목표설정 및 계획, 문제해결, 상황분석, 종합적 사고, 타인인정과 육성, 팀워크와 협력, 인맥, 대외관계, 일반행정능력, 평생교육이해, 피드백, 대인이해, 지식 및 정보, 조직화, 시간설정, 지시 및 통제를 포함하고 있다[2].

리더는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역량, 기술, 가치관을 통해 미래를 구상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현시키는 일련의 과정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최근 긍정적 리더의 역량을 인지적, 관계적, 행동적 측면으로 분석하여 전략, 감성, 실행 역량을 강조하였다[3]. 긍정적 리더의 특성으로 통솔력, 상황파악능력, 협동심, 포용력, 결단력,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유머감각을 제시된 바 있다[4]. 또한 창의적 리더의 특성으로 창의적 사고력, 창의적 성향, 창의적 행동, 자기관리, 건설적 사고, 타인존중, 공동체 배려를 강조하였다[5,6]. 리더 역량은 이러한 특성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리더 역량은 주어진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개인 능력이며[7], 선천적이기보다는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 개선되거나 향상될 수 있다[8]. 리더십이 높은 사람은 구성원과 소통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더 높은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한다.

구성원 안에서의 관계 및 과제지향적 협력방식과 설득형 리더 유형은 전반적인 구성원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9]. 최근 구성원 모두가 리더십을 수행하는 공유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으며[10], 리더의 윤리적 행위를 기반을 두고 진정성 있는 리더가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11]. 공유리더십은 일반 리더십의 개념과 다르게 구성원 모두가 리더십을 수행하는 리더십으로

집합적 리더십과, 분산적 영향력을 핵심으로 강조한다[12]. 분산된 영향력은 리더십의 영향력이 공식적 1인 리더가 아닌 구성원부터 발현되는 상태이며 상호 영향력 관계이다. 집합적 리더십은 팀 내 1인 공식 리더가 아닌 구성원 전체가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팀 프로세스이다[13].

리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리더십 경험을 쌓으며, 리더십 코칭을 받는 과정도 필요하다. 리더 역량은 조직 내에서 리더가 하나 아닌 각기 구성원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역량을 활용하여 구성원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적 역량도 중요하며,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상황적 역량과 구성원과의 원만한 관계적 역량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14]. 리더의 스타일과 행동, 그리고 성격, 가치관, 기술 등이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에 리더 역량과 공감능력과 서번트 리더십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리더 역량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증명하여, 이러한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한편 공감능력은 원만한 사회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다. 공감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타인의 감정과 행동, 의도를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배려할 줄 알기 때문에 외부적 요인과의 갈등도 적다. 이는 공감능력이 타인과의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하고, 타인의 한계에 대해 더 민감하고 존중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감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긴밀한 의사소통과 상대방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자기 성찰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즉, 자신의 편견을 낮추고, 개방적인 태도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서번트 리더십의 핵심도 구성원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 요구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구성원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준다. 팀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로 접근해야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리더의 궁극적 원칙은 봉사이다.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부족하면 문제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각 구성원을 섬기는 신념이 실천하는 행동으로 이어져 봉사하는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리더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변혁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공유 리더십 등이 부각되고

있다. 리더의 역량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그 주요 요인이 다르며, 요인분석을 통해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최근 조직의 공동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리더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인 리더십 행동과 리더 자신의 신념인 리더십 효능감을 강조한 바 있다[15]. 이러한 리더 역량과 공감능력은 미래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미래의 전문직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에서는 연구대상을 유아, 교사, 기관장, 간호대 재학생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리더 역량과 관련 변인 관계 분석에 그쳐 있었다. 또한 리더 역량 개발을 위한 교수학습과정, 교육적 접근법에 대한 근거와 타당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리더 역량, 공감능력, 서번트 리더십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리더 역량 및 공감능력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예비사회인으로서 대학생을 지원하는 교육의 역할과 지향점을 제시하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는 미래사회인의 핵심 리더 역량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타당한 근거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교수자 및 학습자의 서번트 리더십 강화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은 목적 하에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리더 역량, 공감능력, 서번트 리더십의 일반적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 리더 역량, 공감능력, 서번트 리더십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대학생 리더 역량이 서번트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넷째, 대학생 공감능력이 서번트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으로 J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재학생 195명을 임의 선정하였다. 대학생의 일반 특성 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외변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 범위를 J지역으로 한정하였으며, 학년별로 범주화하고 대상인원을 균형화하여 총 195명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으로부터 회수된 설문지 200부 중 학년별 참여율과 부정확한 평정지를 제외하였고, 응답문항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표기된 불안전한 자료를 선별하여 최종 195명의 검사결과를 반영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대학생 리더 역량 측정도구

리더 역량 진단은 박지영(2024)이 개발한 대학생 리더 역량 진단도구를 사용하였다[16]. 하위요인으로는 주도성 4문항, 상황분석능력 7문항, 창의적 문제해결력 9문항, 업무추진력 3문항, 포용력 6문항, 배려적 사고 3문항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5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총 32문항으로 이루어진 검사의 총점은 32~160점의 분포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6가지 하위요인의 대학생 리더 역량을 측정하였으며,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주도성 .68, 상황분석능력 .83, 창의적 문제해결력 .87, 업무추진력 .75, 포용력 .80, 배려적 사고 .70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검사의 신뢰도를 인정하는 Cronbach α 값의 기준 수치가 .60 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었다[17].

Table 1. Tools and reliability for measuring Leader competency

Leader competency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α
Proactivity	4	.68
Situation analysis ability	7	.83
Creative problem solving	9	.87
Work promotion ability	3	.75
Tolerance	6	.80
Caring Thinking	3	.70
Total	32	.93

2.2.2 공감능력 측정도구

대학생 공감능력은 김래완(2017)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사용하였다[18]. 하위요인으로는 상상하기 7문항, 관점 취하기 7문항, 공감적 관심 7문항, 개인적 고통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총 28문항으로 이루어진 검사의 총점은 28~140점의 분포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 대학생 공감능력을 측정하였으며,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상상하기 .84, 관점 취하기 .85, 공감적 관심 .89, 개인적 고통 .83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Cronbach α 값의 기준 수치가 .60 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었다.

Table 2. Tools and reliability for measuring empathic ability

Ability to empathize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α
Imagining	7	.84
Taking a point of view	7	.85
Empathetic interest	7	.89
Personal pain	7	.83
Total	28	.94

2.2.3 대학생 서번트 리더십

대학생 서번트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 인성희(2013)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19]. 하위요인으로 서번트 리더십은 비전제시 3문항, 사람에 대한 존중 9문항,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8문항, 공동체 형성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총 26문항으로 이루어진 검사의 총점은 26~130점의 분포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서번트 리더십을 측정하였으며,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비전제시 .73, 사람에 대한 존중 .87,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92, 공동체 형성 .88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Cronbach α 값의 기준 수치가 .60 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었다.

Table 3. Tools and reliability for measuring Servant leadership

Servant leadership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α
Presenting a vision	3	.73
Respect for people	9	.87
Help You Grow	8	.92
Community formation	6	.88
Total	26	.94

2.3 연구절차

본 연구대상과 무관한 일반 대학생 3명을 대상으로 검사도구의 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도구에 대한 문항 이해와 객관적인 자기평가를 할 수 있었으며 문항 내용에 대한 기준이 일치도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문항 이해에 난해점은 없었으나 논의를 통해 평정척도의 기준을 정교화하여 재평정하였다. 본 검사는 대학생 리더십 역량, 공감능력, 서번트 리더십 검사를 위해 2023년 10월 0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루어졌다.

2.4 자료처리 및 분석

대학생 리더 역량 및 공감능력, 서번트 리더십 검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대학생 리더 역량, 공감능력, 서번트 리더십 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통해 대학생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았다. 대학생 리더 역량과 공감능력 및 서번트 리더십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대학생 리더 역량과 공감능력이 서번트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대학생 리더 역량과 공감능력을 각각 독립변인으로, 서번트 리더십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학생 리더 역량, 공감능력, 서번트 리더십의 일반적 특성

대학생 리더 역량, 공감능력, 서번트 리더십의 기초가 되는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Leader competency and empathic ability and Servant leadership

	M	SD	Skewness	Kurtosis	Score range
Proactivity	14.52	2.72	-.08	-.23	6-20
Situation analysis ability	28.90	4.06	-.69	.49	13-35
Creative problem solving	34.55	5.86	-.27	.22	12-45
Work promotion ability	11.69	2.12	-.38	-.32	6-15
Tolerance	23.88	3.62	-.27	-.54	14-30
Caring Thinking	11.45	2.07	-.17	-.48	6-15
Totally	125.01	17.09	-.28	.06	65-160
Imagining	22.51	4.69	.80	.22	12-35
Taking perspective	23.60	4.37	.91	.26	16-35
Empathetic interest	23.70	4.40	.84	.20	16-35

	Personal pain	24.52	4.35	.57	-.06	15-35
	Totally	94.34	15.84	1.16	.76	69-140
	Presenting a vision	11.80	2.05	-.45	.12	5-15
Servant leadership	Respect for people	37.22	5.27	-.35	-.57	26-45
	Help You Grow	32.27	4.89	-.43	-.24	16-40
	Community formation	24.11	3.73	-.38	-.02	11-30
	Totally	105.41	14.43	-.50	-.04	62-130

〈Table 4〉에 의하면 대학생 리더 역량은 각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는 11.45~34.55, 표준편차는 2.07~5.86, 왜도는 -.69~-.08, 첨도는 -.54~.49의 분포를 보였다. 공감능력의 각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는 22.51~24.52, 표준편차는 4.35~4.69, 왜도는 .57~.91, 첨도는 -.06~.26의 분포로 정규성의 가정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번트 리더십의 각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는 11.80~37.22, 표준편차는 2.05~5.27, 왜도는 -.45~-.35, 첨도는 -.57~.12의 분포로 정규성의 가정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도의 절대값이 3을 초과하고, 첨도의 절대값이 8을 초과하면 정규성의 가정을 위배한 것으로 간주한다[20]. 따라서 이 연구 자료는 정규성의 가정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3.2 대학생 리더십 역량과 서번트 리더십, 공감능력 간의 상관관계 분석

3.2.1 대학생 리더 역량과 공감능력, 서번트 리더십 간의 관계

대학생 리더 역량과 공감능력, 서번트 리더십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대학생 리더 역량과 서번트 리더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r=.87, p < .01$), 전체적으로 서번트 리더십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리더 역량의 점수가 높을수록 서번트 리더십의 점수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감능력과 서번트 리더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r=.63, p < .01$) 전체적인 공감능력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 공감능력의 점수가 높을수록 서번트 리더십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Table 5.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 competency and empathic ability and Servant leadership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Totality
	Presenting a vision	Respect for people	Help You Grow	Community formation		
Proactivity	.69**	.39**	.45**	.62**	.55**	
Situation analysis ability	.69**	.78**	.75**	.75**	.83**	
Creative problem solving	.82**	.55**	.66**	.77**	.73**	
Work promotion ability	.73**	.49**	.57**	.66**	.65**	
Tolerance	.61**	.79**	.71**	.70**	.79**	
Caring Thinking	.60**	.63**	.73**	.64**	.73**	
Totally	.85**	.74**	.78**	.84**	.87**	
Imagining	.28**	.36**	.35**	.34**	.38**	
Taking perspective	.40**	.65**	.51**	.48**	.59**	
Empathetic interest	.20**	.53**	.49**	.33**	.48**	
Personal pain	.40**	.28**	.33**	.39**	.37**	
Totally	.43**	.63**	.58**	.53**	.63**	

** $p < .01$

3.3 대학생 리더 역량이 서번트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력

대학생의 리더 역량과 공감능력이 서번트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전에 요인 간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VIF값은 1.11~3.10로 기준치 10이하로 나타났고, Durbin-Watson값은 1.85~2.32로 기준치 1.54보다 높았으므로 잔차에 대한 상관관계가 없어 서로 간에 독립성이 검증되었다. 이를 토대로 대학생의 리더 역량과 공감능력이 서번트 리더십에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3.1 대학생 리더 역량이 서번트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력

이러한 상관관계를 토대로 대학생 리더 역량이 서번트 리더십을 어느 정도 예측해 주는지를 밝히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대학생 리더 역량과 서번트 리더십과의 관계를 보면 이 서번트 리더십을 설명하는데 있어 전체 변량의 8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2=.76, F = 624.44, p < .001$),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대학생 리더 역량은 서번트 리더십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Table 6. The influence of Leader competency on Servant leadership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R ²	adj.R ²	F
Total	(Constant)	13.161	3.726		3.532**			
	Leader competency	.738	.030	.874	24.989***	.764	.763	624.446***
Total	(Constant)	63.056	4.695		13.430***			
	Proactivity	2.917	.318	.551	9.179***	.304	.300	84.258***
Total	(Constant)	20.274	4.174		4.857***			
	Situation analysis ability	2.946	.143	.829	20.598***	.687	.686	424.258***
Total	(Constant)	42.911	4.216		10.179***			
	Creative problem solving	1.809	.120	.735	15.038***	.540	.537	226.137***
Total	(Constant)	53.964	4.439		12.158***			
	Work promotion ability	4.400	.374	.647	11.780***	.418	.415	138.761***
Total	(Constant)	29.855	4.209		7.094**			
	Tolerance	3.164	.174	.794	18.158***	.631	.629	329.710***
Total	(Constant)	47.421	3.985		11.900***			
	Caring Thinking	5.062	.342	.729	14.789***	.531	.529	218.724***

*p< .05, **p< .01, ***p< .001

3.4 대학생 공감능력이 서번트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력

3.4.1 대학생 공감능력이 서번트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력

이러한 상관관계를 토대로 대학생 공감능력이 서번트 리더십을 어느 정도 예측해 주는지를 밝히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대학생 공감능력과 서번트 리더십과의 관계를 보면 대학생 공감능력이 서번트 리더십을 설명하는데 있어 전체 변량의 6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²=.39, F = 125.18, p < .001),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대학생 공감능력은 서번트 리더십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Table 7. The influence of empathic ability on Servant leadership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R ²	adj.R ²	F
Total	(Constant)	17.116	7.933		2.158			
	Ability to empathize	.928	.083	.627	11.188***	.393	.390	125.177***
Total	(Constant)	74.911	5.480		13.671***			
	Proactivity	1.268	.224	.377	5.654**	.142	.138	31.972***
Total	(Constant)	38.481	6.610		5.821***			
	Taking perspective	2.682	.263	.592	10.207***	.351	.347	104.190***
Total	(Constant)	59.371	6.212		9.557***			
	Empathetic interest	1.921	.256	.475	7.493***	.225	.221	56.150***
Total	(Constant)	57.931	8.647		6.700***			
	Personal pain	2.146	.388	.370	5.526***	.137	.132	30.538***

*p< .05, **p< .01, ***p< .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 리더 역량과 공감능력이 서번트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리더 역량, 서번트 리더십, 공감능력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 리더 역량, 서번트 리더십의 분포는 정규성 범주 안에 포함되어 이를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대학생 리더 역량과 서번트 리더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비전 제시, 사람에게 대한 존중,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공동체 형성 모두 서번트 리더십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리더 역량의 점수가 높을수록 서번트 리더십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토대로 대학생 리더 역량이 서번트 리더십을 설명하는데 있어 전체 변량의 87%를 차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주도성은 55.1%, 상황분석능력은

82.9%, 창의적 문제해결력은 73.5%, 업무추진력은 64.7%, 포용력은 79.4%, 배려적 사고는 72.9%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대학생 리더 역량은 서번트 리더십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황분석능력, 포용력, 창의적 문제해결력, 배려적 사고가 서번트 리더십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서번트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해 경청과 배려, 겸손과 봉사 요인이 중요한 요인임을 밝힌 연구결과[21]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서번트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생 리더 역량 중 상황분석능력, 포용력, 창의적 문제해결력, 배려적 사고가 중점적으로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대학생 공감능력과 서번트 리더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대학생 공감능력의 상상하기, 관점취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이 서번트 리더십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공감능력의 점수가 높을수록 서번트 리더십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토대로 대학생 공감능력이 서번트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대학생 공감능력이 서번트 리더십을 설명하는데 있어 전체 변량의 62.7%를 차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상상하기는 37.7%, 관점취하기는 59.2%, 공감적 관심은 47.5%, 개인적 고통은 37.0%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대학생 공감능력은 서번트 리더십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관점취하기, 공감적 관심이 서번트 리더십을 향상시키는 주요변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공감능력과 문제해결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연구결과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22,23], 공감능력과 효율적인 문제해결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길러주는 교육프로그램을 강조한 연구[24]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직접적인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논의의 외연을 넓혀 살펴보면 타인과의 관계를 다루며 수용적인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윤리적 리더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증명한 연구[25]에서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할 수 있다. 서번트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특히 대학생 공감능력 중 관점취하기, 공감적 관심이 중점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감능력이 서번트 리더십과 밀접한 요인임을 주목하여 이를 향상시키는 교과과정이 개발되고, 비교과과정이 연계되어야 할 필요성

이 있다. 대학생의 독서활동, 문화예술적 경험이 공감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결과[26]를 근거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대학생 공감능력과 문제해결력의 관련성을 제시한 연구[24]에서처럼 대학생의 전공계열을 고려하여 창의적 문제해결력의 인식에 따른 요구도를 반영하여 공감능력을 이끌어내는 다각적인 교육접근이 필요하며, 공감능력의 필요성과 커리큘럼의 혁신을 위해 교과목의 개편과 선택 교과목의 확대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인문사회 리더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있었다[27]. 이는 리더의 핵심 구인으로 창의적 문제해결, 공동체, 리더십을 규정하였고, 창의적 인문사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비교과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교육내용으로 토론학습, 팀티칭활동, 문제해결중심 프로젝트, 창의적 기법 향상 교육을 제시할 수 있다[28,29].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리더역량과 공감능력이 서번트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고려해볼 때 대학생 리더 역량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포용력, 배려적 사고, 상황분석능력을 키워주고, 더불어 학습유형을 고려한 리더 역량 함양 프로그램에 주력하여 서번트 리더십 향상과 공감능력의 강화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추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미래 리더의 역할 수행으로 윤리적 측면과 봉사적 측면을 고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서번트 리더십과의 관련성이 있으며 주요 리더 역량과 공감능력이 주요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실제로 서번트 리더십을 향상시켜주는 교수법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30]. 이에 교양 교과목이나 비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전공별로 강화해야 할 대학생 리더 역량과 역량별 강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밝히는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특정 다수의 검사대상을 고려하여 대학생 리더 역량으로 주도성, 상황분석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력, 업무추진력, 포용력, 배려적 사고를 진단하였다. 그러나 추후 전공계열별로 추구하는 리더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전체적 대학생 리더 역량을 측정하여 대학생 리더 역량의 일반화를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리더 역량이 주요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 연구들이 확대됨으로써 이에 기초하여 대학생의 적절한 직업기초교육 및 진로결정에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A. K. Yang, Y. S. Song, J. S. Kim, J. C. Choi,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eople-centered leadership." Gyeonggi: Knowledge Community, 2022.
- [2] J. S. Lee, J. H. Lee, "A Study on Leader's Competence of Learning Circle: Based on Leader of Autonomous Learning Circle."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Vol.11, No.1, pp.189-216, 2015.
- [3] J. K. Chae, "Differential Effects of Strategic, Emotional, Executional Competence on Leadership Effectiveness and Leader's Behavior." Master's thesis Seoul:Sungkyunkwan University, 2017.
- [4] M. S. Kim, "Ethnographic analysis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4 leaders in 5 aged children." Master's thesis Seoul:Ewha Womans University. 2003.
- [5] M. H. Kim, "An Exploratory Study on a Creative Leadership Scale for Adults." Master's thesis Seoul:Soongsil University. 2011.
- [6] K. H. Lee, C. S. Park, "Validation Study of Creative Leadership Scale for Adult Learners." *Journal of Competency Development & Learning*, Vol.9, No.1, pp.53-69, 2014.
- [7] D. R. Moore, M. I. Cheng & A. R. J. Dainty, "Competence, Competency and Competencies: Performance Assessment in Organizations." *Work Study*, Vol.51, No.-, pp.314-319, 2002.
- [8] C. H. Kim, "A study for development of Korean teacher competency index."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4.
- [9] Y. M. Lee, "The Impact of the Team Competence on the team collaboration procedures and team leader types in the team based project learning."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No.15, pp.157-185, 2017.
- [10] H. I. Kim, "The mediating effect of Change-oriente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hared Leadership and Team Effectiveness at Post COVID-19." Master's thesis Seoul:Korea University, 2023.
- [11] Y. S. Kim, C. S. Youn, "A Literature Review on the Concept of Authentic Leadership."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Leadership*, Vol.8 No.2, pp.5-19, 2021.
- [12] J. Y. Kim, "College Life Experience in the Changed Education Environment due to the prolonged COVID-19 Pandemic: A Focus on K University." *Journal of cognitive Enhancement and Intervention*, Vol.14, No.3, pp.127-151, 2023.
- [13] H. J. Bang, "The effects of shared leadership and psychological safety climate on team performance, team commitment, and change-oriente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 the role of team reflexivity as a mediator." Doctoral dissertation Seoul:Sungkyunkwan University, 2013.
- [14] J. J. Lim, <https://blog.naver.com/ioonjump/223187859095>, 2023.
- [15] H. Y. Ki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Leadership Efficacy Scale - In the Context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Doctoral dissertation Seoul:Hanyang University, 2018.
- [16] R. B. Klin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2011. DOI: <https://doi.org/10.1177/1049731509336986>
- [17] J. Y.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leader competency test for university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5, No.5, pp.123-133, 2024.
- [18] R. W. Kim, "Effects of Empathy, Critical Thinking Skill and Nursing Perception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Gong Ju:Kongju National University, 2017.
- [19] S. H. Ihn, "A study on adolescents' servant leadership." Doctoral dissertation Chungnam: Hanseo University, 2013.
- [20] J. J. Song, "SPSS/AMOS Statistical Analysis Method Required for Writing a Paper." Seoul: 21C, 2015.
- [21] E. J. Kim, M. H. Seong, "Development of a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Aimed at Cultivating Servant Leadership in College Students and the Perceptions of its Effect." *The Korean Leadership Quarterly*, Vol.7, No.4, pp.33-59, 2016.
- [22] J. H. Jin "President's Servant Leadership On Childcare For Infants And Childcare Respect For Rights : Zempath And Teaching Commitment And Subjective." Doctoral dissertation Hyeopseong University, 2022.
- [23] H. R. Kim "The effect of experience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dental hygienists on their empathy and communication efficacy." Master's thesis Busan:Silla University. 2021.
- [24] S. H. Lee, J. S. Kim,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Creativity, Compassionate Competence, Self-Leadership upon Problem-solving Ability." *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Transactions*, Vol.8, No.4, pp.71-80, 2020. DOI: <https://doi.org/10.22716/sckt.2020.8.4.037>
- [25] Y. S. Kwon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ethical leadership of the director, empathy, self-esteem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perceived by employees of the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ion."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2019.
- [26] S. B. Cho, "Relationships between university students' arts & cultural experiences and their creative confluence competency"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2019.
- [27] M. Y. Mun, "Influence of Empathic Ability and Self-Efficacy on Problem 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3, pp.277-292, 2020.

- [28] J. H. Lee, G. B. Park, "A Study for a Program Model for Cultivating Creative Leaders Trained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Vol.32, No.-, pp.1-13, 2021.
- [29] Y. J. Lim, B. K. Kim, S. Y. Kim, & H. J. Lim, "Analysis of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n the creativity and convergence extra-curricular programs" *The Journal of Study Culture Education*, vol.13, no.2, pp.287-312, 2019.
- [30] H. Y. Kim, S. J. Lee, "Application Plans of Competence Assessment: Focusing on the Connection between Assessment and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7, No.4, pp.139-172, 2013.

박 지 영(Ji-Young Park)

[정회원]



- 2012년 2월 : 전남대학교 교육학 박사
- 2014년 3월 ~ 2021년 12월 : 서정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2023년 5월 ~ 현재 : 원광대학교 치의학교육연구센터 교수

<관심분야>

유아문학, 유아교사교육, 유아교육평가